

이슈브리프 302호
(2021.10.22)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virus)’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의미와 과제

제302호

김경숙 신안보전략연구소



국문초록

코로나19와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virus)'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완전한 종식보다는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스라엘, 영국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일상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는 10월 말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확진자 위주에서 위·중증과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백신 완전 접종률 70%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재확산 우려 속에 코로나19와 불안한 공존은 불가피하다.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과 함께 정부는 500만 명이나 되는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해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코로나 종식과 근절이 어렵다면 어느 선까지 일상회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11월 말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채택될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 조약(팬데믹 조약)'에 WHO 기능 강화,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회복력(resilience)을 위한 다자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백신 접종률, 치명률, 트윈데믹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virus)’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의미와 과제

김경숙 (신안보전략연구실)

코로나19와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뜨겁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하면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개념이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11월 둘째 주, 빠르면 11월 첫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방역 전환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은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해외 국가들 동향과 그 파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성급한 방역 해제로 홍역을 치렀다가 가장 먼저 부스터 샷으로 안정을 찾은 사례이다.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58%에 달한 지난 6월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 달 만에 마스크를 다시 의무화 하는 등 방역 조치를 재도입했다. 지난 7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는 40% 이상 완료한 상황으로 신규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수도 감소했다.

영국도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이다. 영국은 지난 2월 봉쇄 해제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단계적 봉쇄 해제를 시행하였다. 마침내 지난 7월 15일 ‘자유의 날’을 선언한 이래로 ‘위드 코로나’ 석 달째를 맞고 있다. 영국은 실외는 물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거리 두기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 지난 10월 12일 웹블리 경기장에서는 영국과 헝가리의 월드컵 예선전이 유관중으로 치러지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배경에는 70%에 달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의 효과로 치명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국은 3차례 봉쇄를 단행했다. 서비스 산업이 80%를 차지하는 영국은 지난해 GDP가 9.8% 하락하면서 30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봉쇄와 생활고로 민심이 폭발하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서두른 것이다. 점차 일상을 회복하면서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GDP 성장률 전망은 약 7%로 G20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영국은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여행 제한 국가를 54개국에서 7개국으로 대폭 줄였다.

물론, 위드 코로나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만 18세 이상의 9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감염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10월 19일 신규 확진자가 4만8천명대로 늘었다. 7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성인들 확진자는 줄고 있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접종 속도가 더딘 17세 이하 아이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학 후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한 이유이다.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명대로 진입했으나, ‘위드 코로나’의 일상을 계속하고 있다. 확산세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코로나와의 ‘불안한 공존’을 선택한 것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사망자는 100여명(14일 현재)으로 대유행 때보다 90% 감소했다가 다시 200명대로 늘고 있다. 방역 책임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서 법적 방역 규제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음성이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다중시설도 상당하다. 물론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영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다. 위드 코로나 선언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83%인 싱가포르를 지난 8월부터 확진자 수보다 치명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안정적이어서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주춤해진 인도네시아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입국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난 10월 2일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종합체육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원래 지난해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됐다. 첫 대규모 대면 행사는 일상회복을 위한 시험대 성격이 강하다. 당국은 행사에 앞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석의 25%로 제한했고, 관람객은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고 경기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다시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국가들도 있었으므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구상

지난 10월 7일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책임자가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10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백신 국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방역 피로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에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방역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 70%의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을 적절한 전환 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힘들어지면서 방역 위주에서 일상과 방역의 균형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방역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코로나19의 종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하면서 종식보다는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본 것이다. 이에 확진자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달 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한 당면 과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10월 말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확진자 위주에서 위·중증과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을 보면, 방심은 금물이다.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위드 코로나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역시 여전히 크다. 재확산 우려와 공포 속에 코로나19와 불안한 공존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 역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미국에서 4차 확산이 진정세이지만 아직 통제 단계는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면서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변이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WHO는 10월 12일 기준으로 델타 변이는 191개국에서, 알파 변이는 195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스콧 고틀리브 전 국장도 ‘코로나19는 더 지속적이고, 토착 질환 같은 위험이 될 것’이라며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접종률이 80~85%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면, 방역과 일상회복의 ‘실질적’ 균형이 중요하다.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률의 확대와 함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백신 완전 접종률 70% 목표치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험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백신 불신으로 예약조차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500만 명이나 되며,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이 되더라도 목숨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또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치명률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3%를 웃돌았으나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7월엔 0.18%로 마의 0.1%대에 진입했다. 8월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다시 0.3%대로 올라갔다. 이는 독감 사망률의 3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독감처럼 코로나19 사망률을 0.1%에 가깝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군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체계에 부하가 걸리고 일상 의료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또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이 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파가 쉽고 독감 유행이나 다른 변이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확산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 책임을 개인 자율에 맡기더라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백신 여권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해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 종식과 근절은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수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 일상회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제적 다자 대응도 지속해야 한다. 11월 말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조약(팬데믹 조약)’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국제 보건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기능 강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백신 접근권 확대와 같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 안보 위협 대응과 회복력(resilience)을 위한 새로운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